

사람으로부터, 하나님으로부터?

크레이그 미들턴



예수님을 증거하는 움직임이 거세어지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. 가말리엘은 전에 있었던 몇몇 그룹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죽었을 때 저절로 사그러 든 것을 상기시켰다. 결론적으로 가말리엘은 “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” 라고 말했다 (사도행전 5:38-39).

가말리엘의 이 생각을 한 번 적용해 보자. 우리들 중 흥분해서 영적인 지도자 즉, 가족 중 연장자 혹은 교회 안의 롤모델 등을 따라 본 적이 있을 것이다. 하지만, 그 사람이 떠나거나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? 여왕벌이 죽었을 때 벌떼는 어떻게 되는가?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무너졌는가? 한 때 영감을 주던 그 리더가 인도하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떠났는가?

가말리엘은 왜 그 그룹들이 결국에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한다. 즉, 그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다 (사도행전 5:38).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그룹에서 이런 일은 두 지점에서 명백히 일어난다. 하나는,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 아닐때, 그리고 다른 하나는, 따르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 때이다. 따르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.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리더를 따를 때 (이는 큰 실수이다), 다른 하나는, 그 따르는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이다. 두번째 경우는 지도자가 가까스로 그 그룹이 유지되게 붙잡고 있는 경우다.

사사 시대가 이의 전형적인 예이다.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. 하지만 “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”다 (사사기 2:19). 혹시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않은가? 거짓인가? 표면적인가? 여러분의 삶에 리더들이 있기에 그냥 붙잡고 있는 시늉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? 그 리더가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? 무너질 것인가?

가말리엘은 계속해서, “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”을 것이라고 말한다 (사도행전 5:39).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론 중에 하나가 이 생각에 기초한다.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산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으며, 성장했고, 예수님 보다 더 큰 일을 했다. 이는 이 움직임이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증거한다. 어떤 사람은, “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,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”고 그 이유를 말했다.

어떤 그룹이 그들에게 안 좋은 일에 생길 때에도 흩어지지 않는 것이 그 그룹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의 증거라는 가말리엘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,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백성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됨에서 볼 수 있다. 이렇게 볼 때, 예수님이 하신, “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”는 말씀의 의미가 더해진다 (요한복음 13:25).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해 보라. 그를 믿는 모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(요한복음 7:21).

결론 1. 만일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흩어진다면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이었는가? 2. 먼저 간 크리스찬 리더들의 염원은 그들이 간 뒤에도 그 공동체의 단합이 지속되는 것이다. 그들이 떠날 때 그룹이 흩어지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. 3.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기억하라: “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의와 피 외에 어떤 다른 것 위에 없나니 ... 다른 곳은 다 꺾이는 모래이니, 나는 그 단단한 바위 그리스도 위에 서리라.